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내용과 2010년 거시경제 정책

2010년 제2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2010년 양회의 주요 내용과 거시경제 정책 전망
2. 일 시 : 2010. 3. 25 (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린자무(林兆木)

1. 경제성장

- 2009년 중국경제는 V자 회복을 실현하여 분기별 GDP의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각각 6.2%, 7.9%, 9.1%, 10.7%를 기록함.
- 2009년 GDP 총액은 33조 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7% 성장하여 연초에 확정한 8% 목표를 초월하였음.
 - 8.7%의 경제성장률은 구체적으로 투자, 소비, 순수출이 각각 8%p(기여율이 92.3%), 4.68%p(기여율이 52.5%), -3.98%p(기여율이 -44.8%) 견인하였음.
- 이번 양회에서는 2010년의 GDP 성장 목표를 8% 정도로 확정하였으며, 이는 UN, IMF, 세계

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예측한 8.8%, 10%, 9.5%보다 낮은 수준임.

□ 2009년과 2010년에 제시한 GDP 성장률 목표는 모두 8% 정도였지만, 정책 유도 방향은 큰 차이점이 있음.

- 2009년은 경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경제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며 8%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집중하였지만, 2010년은 경제의 회복세 공고화, 지역·산업별로 경제구조의 최적화 조정, 경제성장의 질과 효과 제고 등에 집중할 것임.

□ 2010년 거시경제정책은 총체적으로 성장유지,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관리라는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

- 이들 3자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거시경제정책의 안전성,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실시의 핵심과 정도를 파악하여 대응성과 융통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임.

2. 도시 신규 고용창출과 농민공 취업

□ 2009년 도시의 신규 고용창출은 1,102만 명(연초 계획은 900만 명)이었으며, 도시의 등록 실업률은 4.3%(연초 계획은 4.6% 내)를 기록하였음.

□ 2010년의 취업 목표는 도시 신규 고용창출을 900만 명 이상, 도시의 등록 실업률을 4.6%로 통제하는 것으로 2009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를 실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중국 노동시장의 공급과잉 구조는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o 정상적인 경제성장 조건 하에서도 도시의 신규 고용창출은 1000만개 정도에 불과한 반면, 2010년 전국의 대졸자가 631만 명, 진학하지 않고 직접 취업하려는 도시지역 중학교 졸업자들이 520만 명, 취업해야 할 기존 실업자 수가 도시지역에서 2000만 명을 초월하였음. 이외에 농촌의 1.5억 명의 잉여 노동력이 점차 도시와 비농업 산업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 구직난과 동시에 구인난도 심화되고 있음. 관련 부처의 조사에 따르면, 광둥성(廣東省)의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둥관(東莞) 3개 도시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

□ 취업난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에도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할 것임.

- 중앙재정에서 433억 위안(2009년 426억 위안 투입)의 취업촉진자금을 투입하여 2009년과 마찬가지로 곤란기업(困難企業)에 대해 “5가지 완화, 4가지 감면, 3가지 보조 (5가지 사회보험 비용의 납부를 연기, 4가지 사회보험 비용을 단계별로 감소 등)” 라는 취업지원 정책을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세금이 3만 위안 이하(3만 위안 포함)인 소형기업의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중소기업 발전 자금으로 중앙재정에서 106억 위안을 투입할 예정
-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손실준비금을 세전 전액으로 제공하며, 소액 대출기업과 농촌은행에 대한 더욱 많은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임.

3. 주민소비가격지수(CPI)

□ 2009년 연초 주민소비가격지수(CPI)에 대한 예측 목표는 상승률을 4% 내로 통제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0.7% 하락하였음. 그 원인은 아래와 같음.

- 첫째, 과거 몇 년간 대폭 상승했었던 국제석유, 식량 등 주요상품 가격이 2009년에 하락세를 보여 중국의 CPI에 대한 수입 인플레이션 견인요인이 뚜렷하게 감소되었음.
- 둘째, 중국의 CPI 구조를 볼 때 60% 이상이 식품가격의 영향을 받는데, 국내 식량생산이 연속 6년 증가하여 2009년 총 생산량이 5조 3082만 톤에 달하였고 기름, 설탕류, 육류, 수산물의 생산량도 모두 증가하여 공급이 충분하였음. 절대다수의 공업품은 공급이 수요를 초월하여 시장가격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하락세가 나타났음.

- 셋째, 정부에서 물, 전기, 가스 등의 가격 상승을 통제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수용능력과 아래 CPI상승에 대한 영향요인을 감안, 2010년 주민소비가격 (CPI) 상승률을 3%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 2009년의 CPI 증가율은 마이너스 0.7%(그중 2월-10월 CPI 동기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이 었지만 11월부터 반등세가 나타나 올해 CPI에 대해 부정적 기저효과를 가져다줄 것임.
- 최근 몇 개월 국제 주요상품 가격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하였고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국 내 가격이 상승하였음.
- 2009년 국내 위안화 신용대출의 대폭적인 증가는 2010년 CPI 상승에 영향을 줄 것임.
- 2010년 자원·환경 세율의 조정과 자원제품의 가격 개혁도 CPI 상승을 가져올 것임.

4. 대외무역과 국제수지

- 세계경제 둔화로 2009년 중국의 화물 수출입총액은 2009년 동기대비 13.9% 하락한 2조 2,072억 달러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6% 하락한 1조 2,017억 달러,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1.2% 하락한 1조 56억 달러를 기록함.
- 무역 흑자는 1,961억 달러, 실제 이용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900억 달러에 달하여 2009년 말 외환보유액은 2조 399.1억 달러로 2008년 말 대비 4,531.5억 달러 증가하였음. 이 외 각종 경로를 통해 중국에 유입된 핫머니가 1,600억 달러에 달하였음.
- 2010년 중국의 화물수출입 총액의 성장률 예상 목표는 8%이며,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장 개척으로, 전통적인 시장을 공고화하고 신흥시장을 대대적으로 개척

- 둘째,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 안정, 전자제품과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확대, 서비스무역과 서비스 외주업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무역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추진
- 셋째, 수출의 균형적인 발전 촉진에 따른 국제수지상황 개선, 선진기술 장비, 핵심 부품과 국내 부족물자의 수입 확대, 각종 수입촉진 정책과 편의조치 안정화를 실현하고 선진국에서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느슨히 하도록 요구

5. 고정자산 투자

- 2009년 전 사회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30.1% 증가한 22조 4846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
- 중앙정부의 공공투자액은 9,243억 위안으로, 이 중 보장성주택·농촌민생 공사·사회사업에 대한 투자가 44%, 자주혁신·구조조정·에너지절약 배출감축과 생태건설에 대한 투자가 23%, 지진복구건설에 대한 투자가 14%, 기타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가 3%를 차지하였음.
-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대리 발행한 2,000억 위안의 지방채권 이외에 융자플랫폼을 구축하여 인프라건설, 지역사회 발전, 환경개발 등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음.
- 6조 위안 규모의 융자 중 80%는 은행대출로, 이번 “兩會”에서 지방의 프로젝트가 합리적인 지 여부와 대출상환 능력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에 대해 규범화 조정을 실시할 것임. 또한 은행의 대출규모와 M2 증가 규모도 감소되고 은행에서도 대출 리스크를 인식하여 지방정부의 중장기 융자플랫폼에 대한 대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 2010년 전사회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예상 목표는 20%로 확정하였음.

- 그 중 중앙정부의 공공투자가 9,927억 위안(그중 인프라 투자 3926억 위안)으로, “三農” (농업, 농촌, 농민), 보장성주택공사, 위생교육 등 민생영역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자주혁신과 기술혁신, 중서부 지역,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6. 주민소비와 사회보장

- 2009년 경제회복과 취업확대에 힘입어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이 17,175위안, 농촌주민 일인당 순소득이 5,153위안으로 실질 성장률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9.8%와 8.5%를 기록
- 정부의 소비부양책으로 2009년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실질 성장률은 1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정부에서 450억 위안의 중앙재정을 투입하여 가전제품, 자동차, 오토바이의 하향(下鄉) 판매, 자동차가전제품의 신제품 교체(以旧换新), 농기구 구입 등에 대한 정액 보조금 등을 비롯한 일련의 소비부양책을 실시하였음.
 - 또한 소형차 구입세 50% 감세, 자기거주용 주택에 대한 관련 조세 감면 등 정책을 실시하여 2009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46.2% 증가한 1,364만 대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분양주택 판매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42.1% 증가한 9.37억 평방미터를 기록
- 2010년은 취업확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확대, 소비 촉진 정책과 조치 등을 통해 소비수요를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며,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 증가율 예상 목표는 15%로 확정함.
- 사회보장체계의 완비(포함범위 확대, 보장수준 제고)는 민생 보장과 개선의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가계 저축률 감소, 소비수요 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중앙재정 중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은 2009년에 2,906억 위안에서 2010년의 3,185억 위안으로 늘릴 계획임.

7.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2010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당한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유지할 것임.

- 2010년 재정적자는 1조 500억 위안으로 그중 중앙 재정적자가 8500억 위안, 대리 발행한 지방채권이 2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
- 2010년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채무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하일 전망
- 구조적 조세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수확대와 경제구조 조정을 촉진
-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三農”, 민생, 사회사업 등 영역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자주혁신과 미발달지역의 건설을 지원할 계획임.

□ 2010년에도 적당히 완화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 올해 광의통화(M2) 증가율을 17% 정도,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를 7조 5억 위안 정도로 확정함. 이 두 가지 지표는 2009년의 실제 결과보다 낮지만 여전히 적당히 완화한 통화정책 목표임.
- 중국 중앙은행은 올 1월 18일부터 예금 지급준비율을 0.5%p, 중앙은행의 어음 발행이자율을 8bp 인상 조정하였으며, 그 목적은 금융기관의 균형적인 대출을 장려하는 것이지 통화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님.
- 중점영역과 취약한 분야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농민과 중소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하며 고 소비, 고오염 산업 및 생산과잉 산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임.

8. 경제구조 조정

□ 2009년에 제정 실시한 10대 중점산업 진흥규획은 인프라건설을 강화하였고 자주혁신과 기업의 기술개조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음. 또한 생산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도태시킴.

- 1,617만kw에 달하는 소 화력발전소를 폐쇄·정지시켰고 생산력이 2,691만 톤에 달하는 제강설비, 2,113만 톤에 달하는 마그네슘 제조설비, 5,000만 톤에 달하는 석탄 설비, 7,416만 톤에 달하는 시멘트 설비, 1,809만 톤에 달하는 코크스 설비를 도태시킴.

□ 2010년 경제구조조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바이오의약, 첨단 제조업 등을 비롯한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함.

- 둘째, 기업의 기술혁신을 대대적으로 촉진시키고 신제품과 에너지 절약 제품의 발전을 가속화 함.

- 셋째, 기업의 M&A를 촉진하고 낙후 생산설비의 도태를 가속화 함.

- 넷째, 중소기업의 빠른 발전을 유도하고, 중서부지역과 동북 등 노후 공업기지의 빠른 발전을 촉진

9. “三農” 강화와 도시화 추진

□ 2010년 “삼농”에 대해서는 중앙재정 투입을 늘림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과 인프라 시설 건설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 2010년 “삼농”에 대해 전년 대비 930억 위안 증가한 8,183억 위안의 중앙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 중 농민의 종자식량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우량종 보조금, 농기구 구입과 농업 생산수단에 대한 보조금이 1,335억 위안에 달할 것임.

- 식량최저수매가격을 더욱 상향 조정하고 식량생산·돼지사육·소 사육의 규모가 큰 현(顯)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임.
- 재정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 인프라시설과 농촌 민생 공사 건설에 우선 투입하고, 토지양도 수익은 농업 토지 개발과 농촌 인프라시설의 건설에 우선 사용하며, 농촌 전기망을 개조하고 6000만 명의 농촌 음용수 안전 문제를 해결할 방침임.

□ 양회에서 제시된 2010년 도시화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음.

-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중소도시와 소도시 호적 입적 조건을 완화함.
- 계획과 절차에 따라 농민공의 도시 취업과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보수·자녀취학·공공위생·주택 임대와 구입 및 사회보장 등에서 도시주민과 같은 대우를 향유하도록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이동인구가 점차적으로 도시주민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임.

10. 에너지절약 배출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 2010년 에너지 절약 배출감축의 사업 중점은 다음과 같음.

- 공업, 교통, 건축을 중점으로 하여 에너지절약을 대대적으로 추진시키며, 에너지효율을 향상 시킴. 10대 중점 에너지사업, 1000개 기업의 에너지절약 행동과 에너지절약 제품惠民(惠民) 사업을 추진하고 전 사회의 에너지절약 풍토를 조성
- 중점 구역의 환경처리 및 도시오수 쓰레기 처리, 농업의 확산적 오염 관리, 중금속 오염 종합 관리 등 업무를 적극 추진
 - 도시의 旧 오수 처리능력 1500만 입방미터, 旧 쓰레기 처리능력 6만 톤을 신규로 증가
 - 에너지 절약, 물 절약, 토지 절약, 재료 절약 업무를 강화하고 광산자원의 종합이용, 공업 폐기물의 회수이용, 잔열·잔압을 이용한 발전과 생활 쓰레기의 자원화 이용을 추진

-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o 저탄소기술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 기술을 보급하며 신에너지와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고, 인공지능 전력망 건설을 강화
- o 국토 녹화건설을 가속화하고 삼림 탄소격리(Carbon Sequestration in Forestry)를 증가하며, 8880만 묘(畝) 이상의 신규 조림면적을 확보
- o 저탄소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체제와 소비모델을 건설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

〈질의응답〉

질문 1.

플라자합의로 인해 일본 경제 버블이 형성되었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상을 거부하는 이유가 일본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인가?

답변 1.

1985년 일본 엔화의 달러 대비 환율은 1:240 이었고 그 당시 미국에서 일본 엔화 환율의 절상을 요구하였으며, 플라자합의에 따른 환율 절상 이후 일본의 경제에 버블이 나타났고 지금까지도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일본의 경제 버블이 형성된 원인은 환율 절상의 영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 국내 경제의 문제점 때문임. 그 당시 일본의 은행체제에도 큰 문제점이 있었음.

중국의 위안화 절상 여부는 중국의 실제 상황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것임. 골든만삭스를 비롯한 국내외 일부 연구기관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과소평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원자바오 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과소평가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음. 즉 위안화 환율 절상 여부는 중국의 실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해외 언론에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에 대한 보도 중 미국의 19명의 경제학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은 2010년 하반기에 중국의 위안화가 3~5% 정도 절상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그 중 금융위기를 예측하였던 경제학자는 중국의 절상 폭은 4%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사실상 2005년 5월 21일부터 환율 개혁을 추진하여 2008년까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20% 이상 절상되어 연간 절상 폭은 3%~5%에 달하고 있음.

질문 2.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중국 내부의 경제성장 수요에 따라 확정된다고 하였음.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내수확대를 촉진해야 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하지만, 중국 경제의 국진민퇴(國進民退)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낙후되고 있음.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포함한 국제 관계상의 갈등은 중국경제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답변 2.

중국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내수와 외수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 조정 중에 있음. 내수 중에서 소비력 하강이 문제인데, 이는 주민소득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이고 또한 중국의 주민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임.

글로벌 재균형을 통해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소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GDP 비중은 25%이지만 소비는 35%에 달해 사실상 미국인은 미래소득으로 현재 소비하고 있음. 반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함. 2009년 중국에서 내수확대 관련하여 소비 촉진 정책을 많이 발표하였고 소득 저하 문제에 대한 조치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구조 조정의 효과는 단시기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장시간을 걸쳐야 실현되는 것임.

질문 3.

미국이 대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오바마 정부는 수출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답변 3.

미국의 대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 규제의 주요 원인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함. 중국의 일인당 GDP는 세계적으로 100위 정도에 불과하고, 군사력은 미국과 비할 바가 못됨. 미국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으로 이러한 전략을 쉽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부적인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됨.